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5호 【루계 제25999호】 주체107(2018)년 5월 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필승의 신심드높이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갈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강의한 정신력과 애국의 열정으로 하여 이 땅 그 어디나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그 기세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고 광명한 미래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본때와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입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빛나는 예지와 전략적결단이 어려있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간고한 투쟁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오늘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여 번영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러운것 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제건설대진군,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의 지향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당의 웅대한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공화국은 더욱 용성번영할것이며 온 나라에 인민의 행복이 넘치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치게 될것이다.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련속공격전이다.

혁명은 공격전이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끊임없이 돌진해나가는 당과 인민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지난 5년간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헤치며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기 위하여 간고분투하여왔다.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당중앙의 결심을 결사의 의지로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되고 우리의 자강력은 백배해졌으며 경제전반이 상승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디디고 경공업부문의 표준, 본보기들이 마련되였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최상의 문명을 창조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에서도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결정적조건이 마련되였다.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는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는 위대한 인민을 굳게 믿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이 중대한 결정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더 큰 승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며 천만군민을 새로운 영웅신화창조에로 부르는 전투적호소이다.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으로 경제전선전반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나갈 때 우리 혁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당 제7차대회 과업이 빛나게 관철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경제건설대진군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규정하고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가 정확히 집행되도록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과 인민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내밀어야 한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는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모든 근로단체조직들이 경제건설대진군의 격류에 발맞추어 동맹원들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어떠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부문과 지역, 단위별로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당면계획과 전망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일단 세운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자력갱생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족되는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해결하면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돌파해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적극 벌려 온 나라가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더 기운차게 비약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의도에 맞게 조국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련계하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꾸리며 첨단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고 폐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내밀어야 한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세우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정책의 운명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분발하여 일떠서야 온 나라가 들끓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혁신적인 사고관점과 진취적인 일본새를 가지고 사업을 보다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우며 경제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고 시대의 전렬에 내세우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세계경제발전추세를 환히 꿰들고 세계와의 경쟁, 세계를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여야 한다.

모두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그리스도교국제기구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그리스도교국제기구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율라프 파세 트베이트단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인사 담화 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시기장인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아브들라이에 디알로는 4월 25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는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조선로동당의 평화애호적인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조선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인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파뜨나 사끼야는 4월 26일 담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데 대해 찬양한다.

계획을 키우고 국력을 강화해나갈 때 크지 않은 나라도 강국이 된다는것을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왔다.

우리는 대조선《제재결의》들이 즉시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언론은 나리따 숭이찌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김정은위원장은 정말로 천재적인 전략가, 외교가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로씨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월 13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로작을 출판, 발행하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조선땅우에 정의로운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주석께서는 로씨야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로부터 열화같은 흠모를 받으시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나호드까 포르마뜨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세계정치의 걸출한 원로, 희세의 성인

인디아출판보도물들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디아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을 보시고 특집하였다.

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는 《영원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자주외교의 거장》, 《조선의 사회현실, 그 특징》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세기의 위인 김일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다.

조선의 현실을 통해 그 과학성과 진리성,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사상은 전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는 수천년 세월의 암흑을 깨뜨리고 자주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력사무대에는 세계자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펼쳐지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해나가신 세계정치의 걸출한 원로이시며 숭고한 인간애와 덕망으로 천하를 감동시키신 희세의 성인이시다.

신문 《월즈 미러》도 《김일성주석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태양의 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태양과 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의 미소에는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는 만족과 긍지가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절세위인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문 《오우션 뉴스 포인트》는 《세기의 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기를 이어가며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는 《강철의 령장 김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천재적인 지략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로 미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시였으며 전후 조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참으로 그이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강철의 령장, 전설적인 위인이시다.

【조선중앙통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받들고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수백만마리의 새끼련어를 놓아주었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방류어업은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면서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하는 우월한 양어방법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는 련어를 비롯한 강오름성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놓아주고 다 자란 물고기를 잡는 방류어업사업소들이 강하천들의 곳곳에 꾸려져있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지난 4월 23일까지 2백여만마리의 새끼련어를 동해와 잇닿은 강하천들에 놓아주었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의 당, 행정일군들은 방류어업사업소들에 자주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새끼련어생산에 떨쳐나선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수산관리국아래 각지 방류어업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새끼련어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분발해나섰다.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떨쳐나선 로동자, 기술자들은 고기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알낳이를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연지련어들을 한마리, 두마리 손상이 가지 않게 잡았다.

연지련어들이 확보된데 맞게 이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알받이와 알깨우기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각지 방류어업사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보다 많은 새끼련어들을 받아내고 배합먹이와 첨가제를 생산보장하여 충실히 키워냈다.

이들은 배양장의 온도와 수질보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새끼련어사육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특히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새끼물고기들의 사름률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이였다.

성천강방류어업사업소에서 제일먼저 50만마리의 새끼련어를 놓아준데 이어 신포동풍천, 북청남천, 단천남천방류어업사업소에서 각각 수십만마리의 새끼련어를 놓아주었다.

최근 몇해동안 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놓아준 새끼련어는 7백여만마리에 달한다.

도수산관리국에서는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기 위한 어로전을 과감히 전개하면서 바다가양식에도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최영조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력사적사변

조국광복회창립기념일을 맞으며

뜻깊은 조국광복회창립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이 창조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온 성스러운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광복회가 창건된 때로부터 장장 80여성상!

단결의 중심에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영광스러운 년대들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6년 5월 백두산북쪽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한 조국광복회는 전민족의 공친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체였다.

조국의 해방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할수 없던 세월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계시였다. 온 민족을 불러일으켜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제를 족치면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구상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적립장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을 기울이시였다.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수 있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에 대한 견해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알고싶었던 문제들을 터놓았다.

아버지는 지주인데 그의 아들이 혁명을 지지해나서는 경우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본가로서 독립자금도 많이 내고 독립군에 대한 물질적방조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면장으로서 왜놈들하고도 잘 섬기고 인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혁명에 포섭할수 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인의 사상동향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그때의 우리 수령님의 견해가 그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구체화되였으며 해방후 20개조정강에서 국가정책으로 명문화되였던것이다.

주체25(1936)년은 조국광복회창립과 더불어 우리 혁명사에서 특기할 사변을 마련한 뜻깊은 해였다.

당시 안팎의 정세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이미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옴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항일무장투쟁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간고한 행군과 치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어려운 속에서도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험난한 로정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몸소 작성하시느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사색과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민족단합의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모든 준비를 면밀하게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5일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신데 이어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면서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의 가슴을 더욱 격동시킨것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였다. 특히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온 민족이 일심동체가 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총동원된다면 일제는 멸망될것이고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힌 창립선언의 구절구절은 회의참가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뚜렷한 투쟁목표를 밝혀주시며 조국해방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는 백두산청년장군을 우러러 회의참가자들은 뜨거운 격정을 터치였다.

지난날 단결할래야 단결의 중심이 없었던 우리 민족이였다. 3.1운동과 6.10만세투쟁,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을 비롯한 그 모든 투쟁은 민족의 힘을 한데 합치지 못한것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굳게 뭉칠수 있는 강력한 통일전선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니 그날의 그 기쁨, 그 환희를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못 잊을 그날 《조국광복회창립선언》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확신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울리는것만 같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조국의 완전독립과 민족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참으로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전국적범위에서 보다 조직성있고 체계성있게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회가 창립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회장으로 높이 모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백두산을 바라보며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들끓었다. 진정 그것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시게 된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며 일제의 대군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백두산천출명장에 대한 온 민족의 다함없는 흠모와 끝없는 신뢰심의 분출이였다.

조국광복회창립후 그 조직망은 급속히 확대되여 국내각지는 물론 만주와 일본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까지 뻗어갔으며 거기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민족주의자, 애국적종교인을 비롯하여 수십만의 군중이 망라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주체적력량으로 자라났으며 조국광복회는 거대한 위력으로 조국해방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

단결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인민적결사항전으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정치군사적기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혁명적단결의 전통과 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련면히 계승발전되였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를 펼치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온 나라를 일심단결의 성새로 억척같이 다져주시여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 불멸할 공적이다.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자주와 단결의 리념을 승리의 원동력으로 일관하게 틀어쥐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이자 단결이고 단결이자 곧 승리이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거대한 진폭으로 울리는 이 진리의 메아리에 어린 만단사연을 다 펴놓으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평생이 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전백승만을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로정이 되며 기적과 변혁으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력사가 된다. 그리고 무궁토록 번영할 우리 조국의 미래가 된다.

참으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따라 승승장구해온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불패의 정치적력량을 이루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열어나갈수 있다는 철리를 력사에 아로새기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고귀한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는 승리의 력사로 영원히 빛내여갈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혁명의 만년재보

뒤덕봉밀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혁명전적지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나라의 귀중한 국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강회의에서 밝혀주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주체26(1937)년 여름 오늘의 신흥군 정흥리에 꾸려진 밀영이 바로 뒤덕봉밀영이였다.

뒤덕봉밀영은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의 중심을 이루고있는 밀영이였다.

그해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뒤덕봉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을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를 조선인민혁명군 무대의 국내진출과 그들의 활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튼튼히 꾸리고 넓혀나갈데 대한 문제, 신흥지구에서 이미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을 발판으로 광범한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더 많은 군중을 묶어세울데 대한 문제…

다음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뒤덕봉밀영에 나오시여 장골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및 소부대, 소조, 지하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여시고 우리 혁명의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장골회의가 진행되던 때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밀영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골짜기어귀에 있는 화전농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이신줄 알아뵙지 못한 집주인은 지난해 김일성장군님께서 신흥탄광에 오시여 탄광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살아갈 앞길까지 가르쳐주시였다는것을 신이 나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라도에서 왔다는 젊은 녀석이 글쎄 장군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도 통 알아뵙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장군님께서 탄광에 오셨던 다음날 탄광의 좌상들에게 아무 날 어디로 오라는 하늘의 명이 떨어졌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모두 그곳에 달려갔는데 하늘에서 젊은 장수가 내리더니 지금 나라를 빼앗긴 치지에서 모두 힘을 합쳐 왜놈들과 싸울 대신 서로 다투고있다니 이게 당할 말인가고 엄하게 질책을 하였다.

그러면서 장수는 상에 놓인 잔들에 술을 붓게 하더니 그럼 모두 이 한잔술로 그동안 엉킨 마음을 다 풀고 서로 힘을 합쳐 왜놈들과 싸우라고 일렀다.

좌해의 잔들을 비우고난 좌상들중 한사람이 장수에게 아뢰옵기를 그동안 우리가 의사소통을 못해 모대기였는데 이처럼 하늘의 뜻으로 마음을 합쳐주시여 정말 고맙기 그지없다고, 황송하오나 장수께서는 뉘신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장수를 모시고온 병사가 바로 그분이 백두산장수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알려주었다.

모두들 너무도 기쁘고 놀라와 장군님을 뵙자고 머리를 드니 구름이 앞을 가리워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는것이였다. …

이야기를 마치면서 집주인은 《우리 백의민족이 왜놈들과 싸워이기자면 그저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힘을 합쳐야 하지요. 길손들도 보매 뜻이 있어 다니는분들같은데 어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시오.》라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오늘도 뒤덕봉밀영은 그날의 전설을 고이 안고 조국과 혁명을 위해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끝없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도군 대백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2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도군 대백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20돐 기념보고회가 4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박정남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7(1998)년 5월 4일 창도군 대백리에서 토지정리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나라가 힘을 모아 강원도지구의 토지정리사업을 본보기가 되게 잘하고 그 경험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정리사업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망졸망한 뙈기논들과 밭들을 대담하게 정리할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토지정리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토지를 정리하면 많은 부침땅을 얻을수 있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땅에 지펴주신 토지정리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올라 전국의 논밭이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천지개벽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이 이룩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강원도정신창조자답게 자체의 힘으로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늘여 토지정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과시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안고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협동전야마다에 풍요한 작황을 마련함으로써 황금벌의 새 력사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

탄생일 아침에 맞으신 비

봄철이면 비가 적게 오는것이 우리 나라 기후특징의 하나이다.

수십년전의 어느해에도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는 4월초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그해 4월 14일, 현지지도의 길에서 가볼 발파식들에 대한 판수대책을 세워주시고 밤이 깊어서야 숙소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창문을 여시고 밤하늘을 바라보군 하시였다.

금시 쏟아질것 같이 밤하늘에 먹장구름이 끼였으나 비는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4월 15일 아침 드디여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덧옷도 입지 않으시고 뜨락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을 퍼드시고 비량을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일군이 달려와 덧옷을 드렸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없이 그냥 비를 맞으시며 기쁨에 넘쳐계시였다.

일군이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수령님, 오늘 아침마저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올리였다. 그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동무들이 생일 생일 하는데 비가 오니 생일보다 더 기쁘다고 하시면서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인민의 어버이로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시였다.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령군 내동벌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토지정리로 완전히 면모가 달라진 내동벌은 정말 볼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그 모습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다가 이런것을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에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1년도 못되는 단 몇달동안에 올망졸망한 뙈기논들이 흔적도 찾아볼수 없이 큼직큼직하면서도 네모반듯한 논배미들로 모습을 일신하였으니 볼수록 후련하고 흐뭇하였다.

토지정리한 포전들이 볼수록 멋있고 희한하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미술가들이 이런 곳에 와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데 와서 정리된 논판에 모를 내는 협동벌의 풍경을 그리면 아주 멋있을것이라고 기쁨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후 많은 화가들이 내동벌은 물론 토지정리된 전국의 협동벌들에 달려나가 천지개벽된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모두가 명화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은 그렇듯 더없는 선경이였던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김영남동지가 그리스도교국제기구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율라프 렉세트베이트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선교회 대표들로 구성된 그리스도교국제기구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당의 인민중시사상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요구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위대한 추동력이다.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 여기에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의 빛나는 승리가 있다.

당과 인민과의 혼연일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민심을 틀어쥐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는것이다.

인민을 중시한다는것은 결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을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나가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이것은 인민을 위하여 충심히 복무할 사명을 지닌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사고와 실천의 유일한 기준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여도 언제나 인민의 시선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보고 대하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자면 민심을 파악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민심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당과 국가, 사회와 집단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담겨져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세상에 민심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혁명적당이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민심을 잃으면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철대로 민심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1만명이라면 당책임일군은 1만명 종업원들의 속마음을 모두 꿰뚫고 1만가지 처방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매일 1만보를 더 뛰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민심을 외면하거나 흐리게 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일군들은 인민들한테서 신소가 제기되면 눈이 둥그래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인민들이 그만큼 우리 당을 믿고 따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언제나 우리 당에 허물없이 말해주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또 우리 당이 인민들의 의견을 받고 제때에 일을 바로 잡아나갈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일군들은 인민들한테서 칭찬을 받는것도 좋지만 욕을 먹는것도 행복하게 여길줄 알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군중과의 호흡을 한시도 멈추지 말고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감정정서에 맞게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된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세심히 보살펴주고 따뜻이 이끌어주는것이다.

어머니사랑은 가식을 허용하지 않는 진실한 감정이며 체질화된 사랑, 스스로 우러나오는 열렬한 사랑이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그런 진실한 사랑, 어머니사랑으로 사람들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이끌어줄것을 바라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람의 운명문제, 정치적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중히 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교양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바른길에 세워주었을 때 사경에 처했던 삶들이 구원해낸 어머니의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낄줄 아는 사람이 정치적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참된 당일군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생활향상에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인민들속에서 나오고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의하여 등용된 우리 일군들속에는 인민들의 생활상고충에 대한 만성적인 태도와 배배주의, 군중이 어떻게 살든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현시기 해당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인민성의 높이는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당의 경제정책에는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킬수 있는 지름길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측으나사나 무조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때에만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오분열도식으로, 멋따기식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한가지 일을 해도 인민들이 실지 력을 볼수 있게 책임적으로 하여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천사만사를 풀어나가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인민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류례없이 엄혹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인민들이 일떠서면 기적이 창조되는법이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공업토대도 미약한 강원도가 큰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지방공업발전과 농업생산, 국토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것도 이곳 당조직들이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데 근본비결이 있다. 오늘 비약적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수많은 전형단위 일군들이 하나와 같이 이야기하는것이 바로 군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시키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다.

대중의 힘은 저절로 발양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는 당조직,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당조직,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과 집단적경쟁을 활발히 조직진행해나가는 당조직이 있는 곳에서 최대로 분출되게 된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인민중시사상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을 백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 경 수

우시군 가하리 당조직에서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투철한 혁명정신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독보와 해설, 연구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특히 당조직에서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던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맡겨진 영농과제를 제기일내에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당면한 영농전투를 앞두고 작업의 원칙에 진행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로농통신원 최 창 룡

당정책옹위전으로 들끓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이 새로운 건설속도창조로 세차게 끓고있다.

동해의 이름난 명승지 명사십리해변가를 따라 자연경치와 잘 어울리게 형성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는 현대적인 호텔들과 각종 숙소는 물론 영화관, 상점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서게 된다.

세계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억센 기상이 나래치는 명사십리전역에서는 지금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크고작은 건축물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즐비하게 일떠서고있다.

우리는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한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의 투쟁본때를 힘있게 과시

평 양 시 려 단 에 서

평양시려단이 명사십리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단계별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련이어 우승하여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10여만㎡의 성토공사와 1만4천여㎥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완성한 기세로 크고작은 21개 대상의 골조공사 보름남짓한 기간에 결속, 이것은 려명신화가 창조되던 시기의 건설속도를 방불케 하는 비약적인 기록이다.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이 명사십리전역에서 또다시 이룩한 이 혁혁한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하려는 불같은 충정이 안아온 열매이다.

우리는 취재과정에 기적적인 성과를 낳은 비결을 알수 있었다.

이 모든 작전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진행되였다.

시당책임일군은 공사장을 사전에 돌아보고 필요한 건설장비들을 하나하나 타산하였으며 돌격대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공구명세표까지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추진정형을 당적으로 힘껏 떠밀어주면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돌격대원들의 생활에도 구석구석 주의를 돌리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김정덕려단장을 비롯한 려단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침실을 손색없이 꾸리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이때에도 일군들은 단위별경쟁열풍을 일으켜 건설력량의 이동과 동시에 이 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하였다.

시공력량을 실력위주로 선발하고 공정설계에 맞게 건설장비와 륜전기재들을 배치하는 등 모든 사업을 충분한 료해와 과학적인 타산밑에 조직진행하는것도 중요하였다.

건설력량과 장비들의 명사십리에로의 기동전개에 앞서 건설경험이 풍부한 시공참모들로 무어진 선발대가 어려차례 건설장을 찾아 사전대책을 면밀하게 세웠다는 사실은 모든 준비사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상되고 실천에 옮겨졌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

공격전의 1선참호를 차지하고 앞장에서 승리의 화살표를 그어나가는 화선지휘관들의 일본새는 승리를 안아오기마련이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

전투의 승패는 지휘관의 작전에 크게 달려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공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좋은 성과를 이룩해가는 려단일군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 하다.

건설장비, 기공구준비과정을 놓고보자.

당시 공사에 참가한 다른 건설단위들에서는 지대정리와 가설건물공사에 주력하고있었다. 허나 이곳 려단일군들이 결친 작전은 달랐다. 대대지휘관들을 손락이 세고 내밀성이 강한 일군들로 선발한 사실은 내놓고라도 건설력량과 장비보장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따져가며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였다.

실례로 굴착공사와 지대정리가 기본인 조건에 맞게 각 구역, 군대대들에 대형화물자동차 2대와 굴착기 1대를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하였다.

예견성있는 작전에 따라 각 구역, 군들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빠른 기일에 다그쳐 끝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전투시작전에 기초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휘틀제작용목재와 철근 등과 같은 자재는 물론이고 혼합기와 용접기를 비롯한 건설용기계설비들도 충분히 갖추어졌다.

이러한 만단의 준비밑에 려단에서는 지난 1월초 대대별기공구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칼바람과 강추위속에서도 끄떡없게 솜옷들을 차려입고 정렬한 대오앞에는 철근가공과 조립, 혼합작업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별기공구들이 그윽하게 놓여있었다.

째인 전투지휘 또한 중요하다

주도세밀한 작전에 옳은 지휘가 안받침되여야 전투승리를 담보할수 있다.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용기백배하여 공사시작부터 기세를 올리였다. 평양시려단이 차지한 이곳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혁신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졌다.

공사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이 수시로 조성되군 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컬린것은 암속된 공사기일이였다. 곧 지휘관들의 협의회가 소집되였고 전투상황에 따라 공정별작업조직이 더욱 면밀하게 세분화되였다.

달라진 공사지휘체계를 놓고보자.

지난 시기에는 각 대대들의 실태자료가 려단참모부에 종합되여 대책이 취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였다. 그만큼 공사속도가 지연되였다.

이러한 지휘체계를 없애고 려단에서는 시공조직으로부터 자재공급, 하루공사실적총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전투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려단지휘부의 일군들이 전투현장을 하루에 수십번 돌아보며 참모부서들간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도록 전투지휘에 대한 요구성을 보다 높이였다.

지휘관들이 전투장에 나갔다고 하여 매 대대, 중대들의 공사실태는 물론 돌격대원들의 심정까지 저절로 다 알게 되는것은 아니다. 정치부장 김용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늦은 밤, 이른 새벽 가리지 않고 60여리에 전개된 공사장구역을 돌아보며 시공지도를 비롯한 공사조직을 화선지휘관들처럼 짜고들었다. 때로는 미장공, 휘틀조립공이 되여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아래단위들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충분히 료해하였다.

이렇게 현장을 밟아보며 직접 확인한 다음에는 격식없는 협의회를 열고 공사기일을 단축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토의하였으며 째인 전투조직을 따라세워 려단의 공격속도를 최대로 높이였다.

들끓는 전투장과 돌격대원들의 숙소이고 그대로 일군들의 지휘소이고 침식장소이라는 려단일군들의 이야기는 화선지휘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려단일군들은 평양시당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수시로 제기되는 주요건설자재들과 설비들의 요구량을 즉시에 장악보고하여 사전대책을 세우는 사업도 짜고들었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돌격대원들과 한진호에 선 심정으로 통이 큰 지원사업을 벌리였다. 돌격대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침입식정치사업에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평양시가 맡은 공사장에서는 10여대의 방송선전차들과 경제선동대들이 배치되여 혁명의 북소리를 우렁차게 울려가고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려단정치부장이 중시한것은 방송선전차를 통하여 단위별순위평가사업을 하루 두차례이상 진행하는것이였다. 이러한 화선식정치사업은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가 되여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고 결과 평양시려단은 맡은 대상의 기초공사와 콩크리트골조공사를 남먼저 끝낼수 있었다.

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김용남정치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견인불발의 투쟁과 불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는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이라고 생각합니다.》

* *

평양시의 당, 행정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서도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다.

현지보도

잠들줄 모르는 명사십리의 밤

별들도 조으는 명사십리의 밤이다.

해변가의 파도소리를 누르며 창조와 건설의 동음이 드높다.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휴양구역-1건설장은 대낮처럼 밝다.

번뜩이는 화물자동차들의 불빛, 곳곳에 설치된 투광등들에서 발산되는 강렬한 조명빛, 가슴벅차게 안겨오는 《단숨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등의 힘있는 글발들…

현장에 전개된 방송선전차에서는 호소성이 강한 노래가 울려나온다. 힘있는 선동활동을 벌리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모습 또한 우리를 격동시킨다.

전투현장이 시작되는 야산중턱에서 《세계에 도전하라》는 글발이 빛을 뿌린다.

밤을 모르는 건설장에서 용을 쓰는 압송기와 혼합기들, 맹렬한 공격전을 벌려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불, 불의 격전이다.

이동을 불아내는 불의 대하는 결코 조명기재의 효과만이 아니다.

당이 준 전투명령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할 충정의 불길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타오른다.

맞물이를 든 병사들이 대오를 짓고 달린다.

전투장곳곳에서 군인건설자들이 무쇠팔뚝을 휘두르며 철근가공전투를 벌린다. 벽체콩크리트치기를 맡은 전투원들이 그들에게 뒤질세라 불이 번쩍 나게 삽질을 해댄다.

불꽃이 튕기는 삽날들, 산같이 쌓였던 혼합물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콩크리트혼합물이 연해연방 휘틀속에 내려쌓인다.

한몸이 그대로 콩크리트혼합물이 되여서라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드센 열의가 그들의 구리빛얼굴마다에 력력히 어린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인민군군관은 이렇게 말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열은 대단합니다. 이번 건설전투에서도 단숨에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호응하듯 저 멀리 수평선우에서 려명이 밝아온다.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오직 결사관철만을 아는 군인건설자들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전하며.

전투장에 흐르는 분분초초

륙해운성려단의 전투원들

륙해운성려단의 전투원들이 정박장과 호텔건설에서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올해 1월 중순 어느날, 벱짠 바다바람이 불어오는 백사장에 수백명의 인원이 정렬해있었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동해의 명사십리를 훌륭히 전변시킬 불타는 각오로 총만된 륙해운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였다.

이들속에는 단천항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여러명의 로력영웅들도 있었고 불편한 몸이지만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시공참모 김정룡동무도 있었다.

모두의 눈빛은 엄숙했고 발걸음은 빨라졌다. 가설건물전개와 동시에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이 급속히 추진되였다.

현장지휘성원들은 기계화비중을 높여 적은 로력으로 맡겨진 공사과제를 제기일내에 수행하기 위한 작전토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제일먼저 관심을 돌린것은 정박장건설이였다. 해상작업이 기본을 이루는 방과제건설은 수만㎥의 골재로 지반을 형성하고 무게가 10여t이나 되는 무게를 수천개나 쌓아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김용일국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무게와 거석보장에 전투승리의 기본담보가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공사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10여가지의 형태제작과 거석채취를 1차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이런 빈틈없는 준비밑에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방과제공사가 시작되였다.

바다날씨는 몹시도 기승을 부렸다. 칼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고 세찬 파도는 돌격대원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 길길이 날뛰였다. 지반형성을 위해 쏟아부은 골재가 세찬 물살에 밀려 흩어지기를 그 몇번, 밀려오는 파도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전투원들의 옷자락을 적시였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날 몰려온 날씨조건으로 잠수작업을 중지할데 대한 지시가 전달되였다. 그러나 잠수공들은 전투임무앞에서 순간도 주춤할수 없었다. 그들은 광란하는 바다속으로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결은 더욱 세찬 격랑을 일으키였다. 방과제우에서 보장작업을 맡은 돌격대원들이 손에 땀을 쥐고 이들의 작업을 주시하고있었다. 커다란 바위돌도 가랑잎처럼 굴려버리는 사나운 파도가 들이닥칠 때마다 잠수공들은 수m나 뒤로 밀려나군 하였다.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신철진부국장이 대화기를 통해 다급히 소리쳤다.

《위험하다. 올라오라.》

잠수공 송창일동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조금만 견딘다면 작업을 끝낼수 있다. 견디겠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격전의 분분초초가 흘러갔다.

방과제는 날마다를 향해 또다시 전진하였다. 작업을 끝마치고 올라오는 잠수공들의 미더운 모습, 미소어린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구슬땀이 맺혀있었다.

그들이라고 이런 날씨에 잠수작업을 하면 위험한줄 어이 모르랴.

그러나 당정책결사관철로 불타는 이들의 앞길을 그 어떤 자연의 광란도 가로막을수 없었다.

하기에 이들은 사나운 풍랑을 뚫고헤치며 방과제공사량의 50%계선을 돌파한 기세로 련속공격, 계속혁신하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평범한 날에는 무심히 느껴지던 막돌이 보석처럼 여겨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사장에 요구되는 거석생산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울려가는 전투원들, 부재는 걱정말라며 각종 부재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가는 돌격대원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리영철국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호텔건설에 정밀휘틀공법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공사속도와 질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얼마전에는 려단의 전투장에서 공사장적인 보여주기사업도 진행되였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의지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륙해운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이룩해가고있는 자랑찬 성과속에서 우리는 충정으로 불타는 심장을 지닌 정신력의 강자들만이 당정책관철전의 앞장에 당당히 설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인민보건발전의 위력한 추동력

인민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이며 보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보건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현시기 우리 당에 의하여 발단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인민보건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전체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치료예방사업과 위생문화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입니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튼튼한 체력과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자면 보건사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것은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는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치료예방사업과 위생문화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보건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건위생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림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을 모범위생군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심으로써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범위생군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이 운동이 시작된 주체51(1962)년 첫해에만 하여도 40여개의 시, 군들이 모범위생군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모범위생군창조운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적운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범위생군창조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보건사업전반을 획기적으로 추켜세우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벌림에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사회주의보건의 본성에 맞는 집단적혁신운동이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막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이다. 따라서 보건사업은 근로자들의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으로부터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대중적인 사업으로서 광범한 군중의 참가를 전제로 한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보건사업의 이러한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운동으로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보건사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위생문화사업과 치료예방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보건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병원, 진료소, 료양소를 비롯한 보건시설들의 주인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광범한 대중이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공통된 목적과 보건사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에 기초하여 벌리는 운동이라는데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성격과 그 우월성이 있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이 인민보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인민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가장 정확하고 신속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대중적운동이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의 내용에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모두 담겨져있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의료봉사사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치료예방사업과 위생문화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게 한다. 또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 의학과학기술발전과 보건일군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 등 여러가지 과업과 목표를 동시에 내걸고 풀어나가게 되는 전면적인 혁신운동일뿐아니라 보건기관들은 물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과 주민세대들이 참가하여 벌리는 전군중적운동이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현판된 부문과 고리들사이에 협동작전이 더 잘 이루어져 인민보건사업에서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을 보다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다음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지방당, 정권기관들의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보건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사회주의보건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켜세우는것은 보건부문앞에 나서는 정책적인 과업인 동시에 우리 혁명의 요구이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은 군을 단위로 조직진행되는 대중운동인것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지방당, 정권기관들의 지도를 강화하여야 보건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고 보건사업발전에 모든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다.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도 인민정권기관의 지도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인민정권기관의 지도와 방조를 떠나서 사회주의보건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인민정권기관들이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직접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일터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사업을 추켜세우는 사업이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시대의 요구와 광범한 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현실성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지난 시기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많은 지역들이 모범보건군칭호를 쟁취한 자랑찬 현실은 이 운동이야말로 인민보건사업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이며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세상에서 가장 인민적인 우리의 보건을 하루빨리 가장 선진적인 보건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보건부문사업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보건부문사업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당의 방침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령도업적단위들을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게 꾸려야 한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구현함으로써 전염병예방률과 해산방조률을 비롯한 주요보건지표들을 년차별계획에 반영된 목표수준으로 올려세우는것은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보건부문에서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현대의학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앞선 진단 및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방역과 치료예방, 의약품보장사업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의료일군들은 인간생명의 기사들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모든 보건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정성을 체질화하며 기술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최근에만도 우리의 보건일군들속에서는 환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고 높은 실력과 뜨거운 정성으로 환자치료에서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빛내이는 수많은 미풍들이 발휘되고있다. 보건일군들 누구나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뼈속깊이 체질화하고 현대의학과 학기술로 무장한다면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될것이다.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보건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이다.

지금 보건부문에서 벌어지고있는 기술적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을 없애고 자기의 힘과 두뇌를 믿어야 하며 정신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한다. 지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족되는 의료설비와 기구, 의약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 군, 리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답게 잘 꾸리고 물질적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고려약공장들을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시, 군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들은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비롯한 인민보건사업전반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주어야 한다. 평천구역과 만경대구역, 신포시와 모란봉구역의 일군들처럼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자기 지역의 보건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보건위생학적요구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치료예방기관들의 본보기를 창조하여야 한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보건기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한 전선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보건부문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들이 더욱 온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보건사상과 정책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떨치고 문명강국건설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김 성 민

미술교육과 명작창작에서 혁신을

평양미술종합대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교육은 주체예술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평양미술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이 올해에도 교육사업과 작품창작에서 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대학일군들과 교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새 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미술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혁명적열정과 배기에 넘쳐 실천해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술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전에 조선화기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립한 다음 학생들에게 조선화기법을 원리적으로 잘 배워줄데 대해서와 유화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발전시킬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화, 유화와 함께 조각, 공예, 수예, 서예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대학에서는 수십종에 달하는 교재들에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면서 새 세기에 이룩된 미술성과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집필전투를 벌리였다. 하여 조선화와 유화, 조각을 비롯한 미술교재집필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실력전의 된바람속에 가치있는 론문들도 발표되였다.

학생들을 미술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대학에서는 수재교육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교육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조선화를 전공하는 학생인 경우에 그의 희망과 소질에 맞게 인물화, 풍경화, 화조화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정하게 하고 교원들이 그에 대한 실기지도를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빠른 기간에 조선화의 기법들을 습득할수 있게 하고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미술교육의 기초인 소묘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하여 지난 2월에 진행된 광명성절경축 제7차 전국소묘축전에는 학생들이 창작한 많은 소묘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생활에서 종자를 찾아쥐고 참신하면서도 개성적인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대학에서는 온 나라의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대학에서는 근로자들이 미술강의를 받을수 있게 하는 원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잘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평양미술종합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깃든 작품들을 보아주시면서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은 대학의 교원, 학생들은 뜻깊은 올해에 미술교육사업과 명작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차 수

불같은 지향, 완강한 실천

락랑구역연료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락랑구역연료사업소는 저열탄연소첨가제와 더불어 소문이 났다.

저열탄연소첨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곳 사업소에서는 이에 머물지 않고 몇해전부터 값비싼 설비를 쓰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절약하는 새로운 첨가제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하여 저열탄, 연세탄으로 주민용땔감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다시금 큰걸음을 내짚었다.

최근 구역연료사업소에서는 기술집약형, 로력집약형의 일터라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주민용땔감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워 또 한번 크게 비약하였다.

크지 않은 이곳 사업소에서 이렇듯 련이은 성과를 안아온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현대적인 주민용땔감생산기지가 일떠선 곳에는 본래 저열탄연소첨가제와 착화탄, 구멍탄생산설비를 갖춘 탄공장이 있어 구역주민들의 생활상편의에 이바지하고있었다. 그곳에 본래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3층건물들과 PLC조종체계가 구축된 현대적인 땔감생산기지가 일떠서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어려혜전 이른새벽이면 사업소지배인 김희옥동무의 발걸음은 사무실로가 아니라 수도교외에 자리잡은 탄공장으로 향하군 하였다. 그의 손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실린 당보가 쥐어져있었다. 연재, 초무연탄으로 땔감을 해결한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 땔감문제를 자체로 해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길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문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단위에 찾아오시면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수 있을가 하는 광심의 불음이 그의 심장을 두드리였던것이다.

지배인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오던 나날들이 되새겨졌다. 어디서나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새로운 첨가제생산방법을 찾아내던 일이며 종업원들과 함께 손등에 피멍이 지게 투쟁하여 탄공장을 일떠세우던 나날들, 2.16과학기술상과 발명증서를 비롯한 과학기술증서들을 수여받던 일…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비추어볼 때 지금껏 해놓은 일이 그에게는 결코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며칠밤을 밝히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던 그는 당조직과 토의하고 통이 큰 건설전투를 발기하였다. 현대적인 땔감생산기지를 일떠세우자는것이였다.

종업원들은 놀랐다. 작업량이 방대하였을뿐아니라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는 일도 힘에 부친것이였다. 종업원회의때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지배인은 단호히 말하였다.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에 오불조불 타산만 하다가는 언제 가도 앞자리에 설수 없어요. 우리도 과학기술봉마를 타고 달려가자요.》

지배인의 확신과 열정은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사업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껏 밀어주었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방조속에 새로운 땔감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 전투가 벌어졌다. 부족되는 건설자재들을 해결하느라 일군들은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공사장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건설전투가 벌어졌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많은 량의 건설자재들이 공사장에 도착하여 종업원들의 열의를 더욱 분출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신다, 원수님께 기쁨드릴수 있는 땔감생산기지를 기어이 우리 손으로 일떠세우자는 지배인의 불같은 호소에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한돌기한돌기 벽체가 솟구치고 새로운 땔감생산기지의 면모가 자태를 드러낼무렵부터 사업소일군들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기 위한 또 하나의 일판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이 틀어쥔 열쇠는 과학기술이였다.

사업소에서는 과학자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과학연구성과도입을 위해 사업소에 나온 과학자들의 연구조건은 물론 생활상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다. 그리고 과학연구성과도입사업에 언제나 3대혁명소조원들을 인입시켜 그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게 하는 한편 기능공들을 적극 계발시켜 단위의 기술력량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결과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실지 주민용땔감생산기지의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은 모두 사업소자체의 힘으로 제작한것들이다.

원료공급기만 보아도 지난 시기 자동화가 어려운것으로 되여있었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리과대학 연구사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원료공급기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 나날 김희옥지배인은 과학기술공적증을 수여받았으며 많은 종업원들이 청년돌격대의 주인공들로 자라났다.

오늘 이곳으로는 평양시는 물론 전국의 연료부문 일군들이 많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에게 지배인은 이렇게 말한다.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이것이 바로 이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지향이다.

본사기자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 폐막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폐막되였다. 4월 23일부터 진행된 이번 축전에서는 각지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며 핵심기초기술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기술공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가치있는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폐막식이 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동명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6개 단위가 특등을, 80여개 단위가 1등을 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증서, 표창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계희남동지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축전기간 전국적범위에서 이룩된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이 널리 보급되고 새 제품교류봉사도 활발히 벌어져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진행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가 3일과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보건부문 일군들, 과학자, 교원들과 강경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 박기범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형훈동지의 개회사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자주통일의 열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스무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가 우리 민족의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앞으로도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사상과 그 빛나는 생활력》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또한 민족의학과학기술발전과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룩한 연구성과와 경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있게 해설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엑상로진을 리용한 자궁경부암의 집단검진체계확립에 대한 연구》, 《급성피사성위장염에서 지속적인 복막관류법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즉시임플란트이식 및 즉시부하로 치료한 증례》, 《나노자성산화철주사약에 의한 조기간암진단을 위한 MRI학적연구》, 《생물공학적방법에 의한 재조합히루딘제조에 대한 연구》 등의 론문들은 질병예방 및 치료에서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론문발표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총련 효고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춘권 효고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효고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는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떠나서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긍지높은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겠다.

대표단은 또한 조선혁명박물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류원신발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수리아경제공동위원회 제10차회의 진행

조선수리아경제공동위원회 제10차회의가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외경제상 김영재동지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마우문 합단재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수리아경제공동위원회 제9차회의 의정서리행정형이 총화되고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망해문들과 집행계획서들이 체결되였다.

또한 조선수리아경제공동위원회 제10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재일본조선오사까부상공회결성 70돐기념 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김영진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오사까부상공회결성 70돐기념 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4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박혜동지가 전송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정희철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란외무성 동아시아 및 오세안주담당총국장 귀국

마호무드 파라진데호 이란외무성 동아시아 및 오세안주담당총국장이 4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국의 한마음안고 조국의 산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자

과학기술을 비약의 열쇠로 틀어쥐고

황해북도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황해북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실속있게 세운 대책

도일군들이 올해 산림조성사업에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산림조성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는것이였다. 이렇게 한데는 사연이 있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도는 산림복구사업에서 다른 단위들보다 뒤떨어졌었다. 일군들은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해마다 나무심기를 하였지만 그 면적이나 사름률보장에서 앞서지 못한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자기가 심은 나무들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립장에서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칠 때 푸른 숲을 펼칠수 있다는것이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이것을 뼈에 새기고 산림복구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밑에 새롭게 분발해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산림복구전투를 통해 우리의 애국심을 검증받자.

일군들모두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인 나무모생산부터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시, 군모체양묘장들의 원형삽목장들에 온습도수감에 의한 자동분무조종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나무모가 자라는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할수 있는 포전생육감시체계도 세우게 되였다. 그리하여 임의의 포전의 나무모생육상태를 정확히 보고 기술적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였다. 장마철인 경우 물이 자라는 정형까지 보고 포전별로 김매기대책을 제때에 세우는데서도 효과적이였다. 이 체계를 리용하여 갑자기 큰비가 내려 양묘장이 물에 잠기게 될 위험을 방지하는 등 자연피해도 미리막을수 있었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모체양묘장의 통합생산체계화립에서 본보기를 창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나무심기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나무모심기와 관련한 총화를 현장에서 진행한 연탄군의 경험을 일반화한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단위책임자들만 참가하는 총화를 통해서는 나무심기실태를 정확히 료해할수 없었다. 그러나 산림감독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성원들이 다 참가한 속에 현장에서 총화를 하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물론 단위들호상간 우열함을 직관적으로 보고 승벽을 다루며 분발하게 할수 있었다.

시, 군들에서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 결과 총화모임이 산림조성사업에서 하나의 발전적계기로 전환되게 되였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올해 도안의 산들에는 전에 없던 시험구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나무의 사름률보장과 함께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찾기 위한 실정한것이다.

지난해 도에서는 어느 한 식물성장촉진제를 만들어 나무모생산에 리용하였다.

그 결과는 놀라운것이였다. 여러 수종의 나무모생산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게 되였던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산림조성에서 비약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이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과학기술도입령역을 대담하게 넓히기로 하였다. 산들에 시험구들을 설정하고 나무모들을 이미 양묘장에서 효과를 본 식물성장촉진제나 테라코템 등으로 각각 처리하여 심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단위들에서 보다 호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를 연구개발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었다.

일군들은 산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도 중시하였다.

도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목재는 물론 땔감에 이르기까지 산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산림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일군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도 과학기술로 지켜내야 한다는 립장에서 달라붙었다.

이들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로 건재품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자체로 꾸리는데 성공하였다. 종전에 수입하던것보다 훨씬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리용가치가 큰 이 건재품을 도안의 여러 대상건설장에 보장하게 되였다.

어느 한 단위에서는 농업생산에 요구되는 목재를 다른 재료로 보장하였고 수안군에서는 산림부산물을 적극 리용하는 등 산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산림조성성과를 놓고 자기 사업을 뼛뼛하게 총화지을 각오로 떨쳐나설 때 비약의 보슬을 찾고 푸른 숲을 더욱 늘일수 있다.

실천을 통해 이것을 확신한 일군들은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면서 산림조성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전망을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성천군 장상리에서

줄어든 나무모생산주기

최근년간 성천군 장상지구 산림조성사업에서는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푸른 숲의 면적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숲사이양묘장에서는 창성이깔나무모의 생산주기가 종전에 비하여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선진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인 결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몇년전 어느날이였다. 이곳 산림감독원 박광철동무는 어느 한 단위가 좋지 못한 땅에서도 알곡과 남새소출을 높이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알아본즉 린과 질소고정균에 의한 미생물비료를 생산리용한데 비결이 있었다.

당에서는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밝혀주지 않았던가.

그는 이와 관련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때워가지고 돌아와 리옥실동무를 비롯한 산림용만원들과 함께 도입사업에 달라붙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미생물배양공정이였다.

이들은 종균을 배양한 다음 무식토와 섞어 밀비료형식으로 리용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헐치 않았다. 그중에서도 처음 해보는 미생물배양은 매우 복잡한 기술공정이였다. 이런 박광철동무를 보며 뒨한 고생을 사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진과학기술도입의 길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것을 끝끝내 제힘으로 해냈다.

그와 산림용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응당한 결과로 이어지였다.

줄이 많이 들던 창성이깔나무모의 생산주기가 지난 시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종전같으면 2년이상 걸려야 했던 창성이깔나무모를 한해동안에 합격품으로 키워 산에 심을수 있게 되였다.

특히 나무모의 잔뿌리수가 그전보다 2배이상으로 늘어난것이 좋았다.

산에 옮겨심는 나무는 잔뿌리가 많아야 토양속의 영양물질과 물기를 더 잘 빨아들일수 있다.

결국 사름률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강냉이수염들이 얽힌것처럼 보이는 뿌리속에는 많은 린과 질소고정균들이 붙어있어 나무들이 불리한 자연조건에 더 잘 견딜수 있게 된것이였다.

지난해 례년에 없는 왕가뭄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산지에 옮겨심은 창성이깔나무모들이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푸른 잎새를 활짝 펼치며 잘 자랐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선진과학기술도입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였다.

결과 지난 시기보다 창성이깔나무모의 생산주기는 절반으로, 숲사이양묘장의 면적도 집약화수준을 높여 1/3정도로 줄일수 있게 되였다.

반면에 푸른 숲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당의 높은 뜻대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킨 결과는 참으로 좋았다.

본사기자 김성일

래일로 미룰수 없는 일

천리마구역송배전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천리마구역송배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언제나 깊이 자각하고있는것이 있다. 황금산, 보물산을 가꾸어 조국의 재부를 늘이는데서 오늘에 할 일을 래일로 미루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이 자각을 안고 이들은 지난 기간 담당림관리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그 보람으로 담당림에는 많은 나무가 자라게 되였다. 이것을 볼 때마다 종업원들도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담당림을 그런 감정으로만 대할수 없었다.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더 많이 심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수록 자신들이 해놓은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것을 절실히 느끼였다.

째말은바가 클수록 결심과 실천도 단호하고 빨랐다. 이들은 해당 부문과 련계를 가지고 경제적가치가 있는 나무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 구역에서 올해 왕밤나무와 잣나무모 등을 많이 키우기로 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런 나무모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여 좋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것을 자체양묘장에 심자니 로력문제가 제기되였다. 전력보장을 하면서 담당도로구간에 대한 관리를 비롯하여 봄철국토관리사업도 다같이 밀고나가자니 로력이 긴장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일군들은 로력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산림조성사업을 뒤전에 미루어놓는 립장에 서지 않았다.

이 사업을 오늘 못하면 래일 하자는 식으로 대한다면 푸른 숲이 그만큼 늦게 펼쳐지게 될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일군들은 나무모심기를 적기에 무조건 하기 위해 로력조직을 짜고들었다. 그리고 종업원들과 함께 즉시 담당림에 있는 자체양묘장으로 달려나갔다.

현지에서 이들은 먼저 부식토 확보전투를 벌리였다. 부식토를 포전에 묻고 나무모들을 심기 위해서였다. 이미 나무모생산토대를 갖추어놓은 조건에서 여기에 그냥 나무모들을 심을수도 있었다. 그러면 나무모심기를 빨리 끝낼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헐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성실한 땀을 바쳐 담당림을 사회주의애국림으로 가꾸자.

모두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더 많은 부식토를 확보하여 운반하였다. 이것을 퍼고 채로 쳐낸 보드라운 흙을 덮은 다음 물주기를 하면서 나무모들을 정성껏 심었다.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한 사업을 래일로 미룰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고있는 이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어 담당림은 갈수록 푸르러지고있다.

본사기자

산림복구전투에서 우리도 한몫

박천군안의 녀맹원들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깊이 새긴 정평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에 들어와 나무모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나무모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맡겨진 작업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나무모생산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또한 숲사이양묘장들에서도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푸른 숲은 양묘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이 산림복구전투장들에 합격정표를 갖춘 나무모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또한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나무모들이 산지에 나가서도 높은 사름률을 보장할수 있도록 책임적으로 일해나가고있다.

산림감독원들과 산림용만원들도 품들여 꾸려놓은 숲사이양묘장들에서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해당 단위들에서 심은 나무들이 지장없이 자라는가도 늘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해당한 대책을 즉시에 세워나가고있다.

푸른 숲 우거질 고향산천의 더 좋은 래일을 그려보며 나무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군안의 산림복구전투장들에는 실하게 키운 나무모들이 지장없이 보장되고있다.

본사기자

푸른 숲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조국의 래일을 가꾸어가는 애국자들이다. 그들속에는 심어정보의 산림조성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제손으로 키운 좋은 수종의 나무모들을 애지중지 심어가꾸며 무성한 푸른 숲을 펼쳐가고있는 박천군안의 녀맹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들이 심어정보의 산림조성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았을 때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한두정보도 아니고 심어정보의 산림을 조성해야 하기때문이였다.

녀성들만 가지고 돼 해낼수 있겠는가 하며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군녀맹위원회 일군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자랑찬 진군의 발구름소리는 산림복구전투에서도 힘차게 울려퍼져야 한다. 우리들의 힘으로 네 고향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애국으로 불타는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일군들은 녀맹원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정을 믿고 이 사업을 환강하게 밀고나갔다.

금선무는 나무모를 생산보장하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양묘장을 꾸려놓고 필요한 량의 나무모를 생산보장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모든 녀맹원들이 나무모생산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즉시 조직사업이 따라서고 실천에 옮겨졌다. 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양묘장의 위치가 정해지고 개간전투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다음날부터 녀맹원들은 잡판목을 떼고 돌들을 추어내며 양묘장을 꾸려나갔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질좋은 무식토를 운반하였고 많은 량의 니탄을 리용하여 땅을 걸구었다.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 같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푸른 숲 실례입 고향산천의 래일을 그려보며 새 힘을 얻군 하였다.

뜨거운 향토애, 조국애를 안고 이악하게 일해나가는 녀맹원들을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적극 도와나섰다. 이들은 녀맹원들이 군적인 산림조성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에 고무된 녀맹원들은 군안의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을 펼쳐놓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잡판목만 자라던 땅에 양묘장을 꾸려놓고 씨붙임까지 질적으로 끝내였다.

이들은 만족을 몰랐다.

품들여 꾸려놓은 양묘장에서 녀맹원들은 따라배우기도 하고 따라앞서기도 하면서 합격정표를 갖춘 나무모들을 키우기 위해 애썼다.

이들은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애어린 나무모들이 부러지지 않을가, 한여름의 피약멸이 내려쪼일 때에는 가물피해를 받지 않을가 늘 관심하며 북도 주고 김매기도 알심있게 하면서 비배관리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였다.

이 나날 녀맹원들은 나무모생산을 늘이고 심은 나무들에 대한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얻게 되였다.

군녀맹위원회에서는 이룩된 성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갔다.

이와 함께 녀맹원들이 군모체양묘장의 포전정리와 나무모비배관리도 자기 집일처럼 도와주어 이곳에서의 나무모생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나무모비배관리와 관련한 기술전습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특히 일군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이 지녀교양의 좋은 계기가 되도록 조건과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 모든 녀맹원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잘할수 있게 하였다.

한그루의 나무모도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키워가는 녀맹원들의 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났다.

카까운 앞날에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훌륭한 녀성들, 오늘도 이들은 산림조성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고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 열의밑에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방영진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발휘된 훌륭한 사업기풍

해주시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국토관리사업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자기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주인답게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주시가 최근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안전성과 문화성이 보장된 도로들과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정리된 중소하천들,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더 훌륭히 개건된 여러개의 다리들, 새로 지은것처럼 보수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산림조성사업과 도로건설, 강하천정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여 전국적으로 앞서나가는 시, 군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것은 해주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자기 사는 일터와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지난해 1월 어느날 저녁이였다.

시안의 도로들을 오래도록 밟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었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 시의 도로들은…)

그의 결심은 굳어져갔다.

그후 열린 시당집행위원회에서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올해에 시안의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킵시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면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불비한 도로상태를 전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땜때기식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개변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도로건설과 기술개건에 대한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웠다.

해주—평양, 해주—청단, 해주—개성도로들에 대한 기술개건과 시안의 여러개소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를 비롯하여 방대한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방향이 명백히 세워졌다.

시에서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여 력량을 총동원하여 공사에 진입했다.

부족되는것은 로력과 자재였다. 그럴수록 일군들은 부족되는 자재해결을 위해 뛰고 또 뛰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그리고 늘 현장을 밟아보면서 도로포장의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공사를 통하여 일군들은 자기 힘을 믿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

도로보수관리대전물공사를 계획하고 작전을 펼칠 때였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따져볼수록 건설을 해내기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일군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러나 시당책임일군의 립장은 단호하였다.

도로보수관리대전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워 도로관리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그의 호소는 일군들을 분발시키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도로보수관리대전물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꾸려졌다.

시에서는 이밖에도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자체의 힘으로 건장한 외장재문제를 풀고 진동다짐기를 해결하여 도로포장공사에서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립에서 본보기를 번듯하게 꾸려놓은것을 비롯하여 국토관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시의 책임일군들이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지난해 이룩된 해주시의 국토관리사업성과에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품을 들여 하는 일본새이다.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되던 어느날이였다.

공사장을 돌아보던 시의 한 일군은 어느 한 기업소가 맡은 구간에서 솔리는 나직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남보다 앞서려는 열의는 물론 좋다. 하지만 앞으로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도로가 파괴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

경영에서 이길 생각만 하던 단위책임자는 시당책임일군의 진정이 담긴 목소리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밤늦게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는 그들을 돕는 일군들의 가슴에도, 로동자들의 가슴에도 자책되는바가 컸다.

도로포장공사에 이어 어느 한 하천제방공사에 달라붙었을 때였다.

큰물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우불구불한 물길을 곧추 펴고 하천바닥을 파내는 한편 제방의 경사각도를 종전보다 완만하게 하자니 품이 곱절 들었다.

경사각도를 낮추니 돌도 훨씬 많이 들었다.

이때 방송선전차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모두다 이 물음에 심장으로 대답하며 사랑하는 어머니조국, 고향땅에 깨끗한 량심을 꽂읍시다!》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일손을 잡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힘에 부치는 일이였지만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제방을 쌓자고 하면서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렸다.

광석천보수공사때 물말이시설물과 바닥콩크리트보수의 질적보장을 위하여 현장에 직접 내려가 대책을 세워준 시당책임일군, 창조물에 한점의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도로포장공사에 성실한 땀을 묵묵히 바친 일군들과 근로자들…

고생은 우리 대에, 락은 후대들에게!

하나를 건설해도 손색이 없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투쟁하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시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시일군들의 경험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나간다면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청진의학대학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청진의학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을 많이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실천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들에게 연구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높이 세운 결의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였다.

대학에서는 중요연구과제를 맡고있는 연구집단의 력량을 보충갱신하고 교원, 연구사들이 학위론문집필을 계획대로 내밀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교원, 연구사들이 림상실천실기수준을 부단히 높이게 하였다.

대학일군들의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교원, 연구사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정력적인 과학탐구활동으로 가치있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을 달성하였다.

대학연구소 정보연구실의 연구집단은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몹안의 질병을 과학적으로 예보 및 진단할수 있는 체계를 연구개발하였다.

안이비인후 및 두경부외과학강좌 교원들은 여러 단위 의료일군들과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학연구소 외과연구실의 연구집단은 수십차례의 실패에도 주저없이 수년간의 고심어린 탐구와 꾸준한 연구로 난치성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새로운 절제수술방법을 연구완성하였다.

대학에서는 병치료에 의의있는 의료기구개발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우리 식의 새로운 의료설비와 기구를 창안도입할 열의를 안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꾸준한 과학연구활동을 근기있게 벌려 많은 의료기구들을 연구제작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높은 목표, 대담한 실천으로 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은 더 많이 이룩될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6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바드민톤경기관에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바드민톤대항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다음주에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이 있게 된다.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 4.25체육단에서 남자
4.25:려명
소백수:갈매기
리명수체육단에서
리명수:선봉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녀자
경공업성:평양
제비:봉화산
갈매기체육단에서
갈매기:내고향

1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경공업성:평양
기관차:려명
4.25체육단에서 녀자
보향산:4.25
소백수:월미도
리명수체육단에서
리명수:평양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

판문점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곳이다. 쌍방의 무력이 총부리를 맞대고있어 항시적인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는 가장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판문점이다.

긴긴 세월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력사의 한복판에서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판문점이 그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흔날려버리고 분렬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을 내뿜는 곳으로 될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번에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장소를 민족분렬의 비극이 짙게 드리워져있고 북남쌍방의 무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으로 정하시고 몸소 남측지역에 나가심으로써 분렬의 상징으로 되여왔던 판문점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평화의 상징으로 되였다.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심정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금단의 선을 단호히 부정하시고 겨레의 마음에서부터 분렬의 장벽을 순간에 허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은 온 세계를 커다란 충격과 일광, 환호와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을 여유있게 주도해나가시고 상봉과 회담, 만찬에 참가한 남측인사들을 뜨겁게 대해주시는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오며 온 겨레는 격정의 환호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확고한 통일의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통일에로 이끌어나가시려는 한없이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명감과 책임감, 무한대한 도량과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민적풍모, 비상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을 온 겨레는 그이의 태양처럼 환하신 영상과 호방하고 진정넘친 음성, 위풍당당한 모습을 통해 사무치게 새겨안았다.

그이께서 기념식수를 하시며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하신 말씀은 또 우리 겨레를 얼마나 경탄케 하였는가.

그 고귀한 말씀의 구절구절마다에 절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선언 공동발표와 만찬에서 하신 연설들에 접하고 감동을 금치 못한 남조선당국자들과 각계는 그야말로 명문, 명저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남조선언론들은 그이의 연설전문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였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 정 은
2018.4.27》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화의 집》방명록에 남기신 이 력사적인 친필을 보며 전체 조선민족은 절감하였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가시는 그이이시야말로 새로운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온 겨레의 희망의 기둥이시고 삼천리를 밝게 비치는 찬란한 태양이심을.

이번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직접 목격한 남조선 각계는 진보와 중도, 보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민족의 장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누르지 못하면서 격정을 터치였고 위인칭송의 파도를 불아왔다.

6.15와 더불어 김정일열풍이 일어번졌던것처럼 4.27충격으로 남녘땅 각지에 김정은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인터네트에는 그를 반영한 글들이 련속 실리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거침이 없었다.》, 《말은 스스럼없었고 행동은 자신감에 넘쳤다.》, 《김정은위원장은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어보였다.》, 《솔직하면서도 대담하였고 유모아적이였다.》, 《김정은위원장은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났다.》, 《정말 멋있다.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이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이다.》…

격정에 잠긴 남조선민심의 이런 모습은 그대로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대적인 위대성에 대한 매혹과 찬탄이며 그이의 령도따라 키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력사의 호소이다.

정녕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민족자주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대전환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과격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기에 판문점수뇌상봉이 마련되고 민족자주를 핵으로 하는 판문점선언이 탄생할수 있은것이 아니랴.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판문점선언은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의 선언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기어이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에 의해 통일된 강토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려는 민족의 세기적숙원은 마침내 희망의 언덕우에 꽃망울로 피어나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강인담대한 기상으로 세계를 굽어보시며 력사의 장엄한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이 땅우에 머지않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찬연히 밝아올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

련합경축모임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경축모임이 4월 14일 스웨덴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임장소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스웨덴에, 단마르크,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나라의 진보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성원들, 스웨덴에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스웨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등 여러 인사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경축모임이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의 해방과 륭성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혁명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근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태양절과 21세기의 조선》

세네갈정계인사 담화 발표

세네갈독립민주당 상임비서 아마두 싸르가 4월 20일 《태양절과 21세기의 조선》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태양절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명절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을 나라와 인민,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하여 바치시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의 탄생일을 태양절로 경축하고있다.

그는 오늘날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은 새 세계건설을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 서있다.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 광범히 보급되였다.

조선은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도록 불심량면의 지원을 주었다.

조선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던 엄혹한 시기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증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선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본보기로 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반제자주위업을 더욱 힘있게 주도해나갈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잡지《통일》2018년 4월호 발행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월간사회정치잡지 《통일》 2018년 4월호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식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의식장소인 인민대회당에 습근평동지와 함께 들어서시는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소식을 보도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에 대한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의 보도내용 등을 실었다.

잡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신 소식을 편집하였다.

잡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를 게재하였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20차 김일성화축전과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이 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을 잡지는 전하였다.

잡지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규탄하는 글과 유엔인권리사회 제37차회의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또다시 조작해낸 우리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라는것을 배격하는 내용의 문건 등을 편집하였다.

남조선로동운동단체들 5.1절기념행사 진행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으며 1일 로동운동단체들이 서울에서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민주로총은 로조원 1만여명의 참가하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로동법개정과 비정규직철폐, 제벌개혁 등 로동적폐를 청산하고 로동권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조정을 중지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최저임금을 즉시 올릴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집회를 마친 후 시내 중심거리를 따라 시위행진을 하였다.

한편 《한국로총》은 로조원들과 비정규직로동자 등이 참가하는 마라손대회를 진행하였다.

단체는 로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로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못매를 맞은 특등대결광

력사적인 판문점수뇌회담을 악의에 차서 헐뜯어대다가 남조선 각계로부터 거세찬 비난과 규탄의 못매를 맞고있는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가 이제는 자기 패거리들한테서까지 몰리우고있다. 북남사이에 무르녹는 봄기운을 막아보겠다고 대결의 랭기를 숨가쁘게 뿜어대며 지랄발광하는 시대의 쓰레기, 대결미치광이를 누구도 곱게 볼리 만무한것이다.

남조선 각계가 적극 지지환영해나서는 판문점수뇌회담과 판문점선언을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마구 비방하는 홍준표의 어리석은 추태에 아연해진 《자유한국당》것들은 저저마다 대표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당이 아예 망할수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서 억도에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들이대고있다. 지어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홍대표가 잠수를 하면 좋겠다.》는 야멸찬 비난까지 퍼부었다.

그럴수밖에 없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분수없이 놀아대며 여론의 비난만 사는 멍청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저들까지 한몽둥이에 맞을 판이니 아무리 한족속이라도 해 등이 달지 않겠는가.

제딴에는 《보수의 중심》이니, 《정통보수의 대표자》니 하고 흰목을 빼들며 권력야망까지 드러내던 홍준표가 제 패거리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은것은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여기저기에서 얻어맞고 고립배격당하는 가련한 정치시정배, 특등반역아의 머리우에서는 까마귀만이 청승맞게 울어대고있다.

은 정 철

시대의 밖으로 밀려난 오물들의 단말마적발악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악의에 차서 비난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칼든 강도가 칼을 숨기고 협상하자는것》, 《제제로 인한 붕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술수》라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북의 그 어떤 평화공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핵폐기없는 남북협상은 리적행위》라고 하면서 북남사이에 합의를 이룩한다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이며 돌아치고있다.

지어 《대한애국시민련합》, 《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떨거지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대결광대극을 벌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시비질하는 대결병자들의 히스테리적망동이며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시대의 흐름에 밀려난 력사의 오물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우리의 성의와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의 궤도에 힘차게 들어섰다는것은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현시기 급격히 전변되는 북남사이의 관계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탄국면에 치하게 하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위험에 몰아넣은 보수패당의 만고죄악에 대해 폭로하고있다.

하기에 보수패당은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어둠속에 감추어져있던 저들의 더러운 정체와 매국적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 비참한 운명이 두려워 피를 물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광하는 보수패당의 책동에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자유한국당은 분단체제에 기승하며 반공과 빨갱이놀이가 아니면 정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세력》,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파탄시킨 책임이 있고 한반도정화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무능했던 새누리당의 후손이다.》,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과거부터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한반도정화와 남북관계개선분위기에 재를 뿌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완전하고 접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파괴방식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화와 통일열기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잔명을 부지해온 보수패당에 파멸을 선고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력사의 대하를 절대로 막지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보수단체들을 써먹은 내막탄로

박근혜역도가 반인민적악정을 정당화하며 그것을 한사코 강행하기 위해 극우보수단체들을 적극 써먹은 사실이 다시금 폭로되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할것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벌릴 당시 보수메거리들은 그들앞에서 《폭식행사》놀음까지 벌리며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었다.

이것이 박근혜《정권》의 음모책동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최근 《MBC》방송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

보도들에 의하면 《자유청년련합》, 《세마음포럼》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의 깡패들은 단식을 하는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앞에서 마구 음식을 먹어대는 《폭식행사》광대극을 벌리며 피해자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이자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모차를 끌고 시위투쟁에 나섰던 녀성들을 《아동학대》망발로 모독하였으며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질 때에는 맞불집회를 벌리며 란동을 부렸다.

그런데 이 악질보수단체성원들을 배후에서 조종한것은 다름아닌 박근혜《정권》이였다.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박근혜역도는 삼성재벌과 《전경련》 등을 통하여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이 보수단체들에 던져주며 친《정부》란동을 부리게 하였다.

《자유청년련합》이 박근혜역도의 추동을 받고 반역《정권》의 악정을 비호하며 깡패짓을 일삼은 대가로 받아먹은 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만도 거의 1억원에 달하였다.

다른 보수단체의 경우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한달동안 피해자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박근혜패당에게 유리한 광고를 내며 친《정부》집회를 벌려 받아먹은 자금은 1억원이 넘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극우보수단체들의 친《정부》활동이 자발적인것이기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정부》가 간섭할수 없다고 우겨온 박근혜역적패당의 망동이 얼마나 파렴치한짓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살인기업처벌을 위한 법제정을 요구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로총, 로동건강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에만 미쳐돌아가며 수많은 로동재해사건을 발생시킨 기업체들의 순위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2018년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선정되였다.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해 5월에만도 기중기차들이 충돌하는 바람에 6명의 로동자들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로동재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희생자들은 모두 비정규직로동자들이였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로동재해로 인한 로동자들의 사망은 그들의 잘못에 의한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리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들의 살인행위에 따른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업주들이 법적처벌을 모면하고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결코 로동재해를 방지할수 없다고 하면서 로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로동재해사건을 빚어내는 살인기업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로동자들이 더이상 로동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단체들 일본총령사관주변에 강제징용로동자상 설치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1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를 비롯한 부산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일본에 끌려가 갖은 고역을 강요당한 로동자들을 형상한 강제징용로동자상을 부산에 있는 일본총령사관주변에 세웠다.

단체들은 4월 30일 일본총령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옆에 강제징용로동자상을 나란히 세우려 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이 과정에 수백명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1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단체성원들은 일본과의 외교적마찰을 운운하며 강제징용로동자상을 총령사관앞에 설치하는것을 반대한 남조선외교부와 부산시당국을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날로 악랄해지는 령토강탈행위

얼마전 유태인정착민들이 요르단강서안지역 북부 아크라바마을에 있는 이슬람교사원에 불을 지르고 탐벽에 인종차별적인 구호들을 새기는 만행을 저질렀다.

팔레스티나에서는 반이스라엘시위가 자주 벌어지고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정당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유태인정착민들이 아크라바마을의 이슬람교사원에 불을 지른것은 팔레스티나를 말살하고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하여 이 나라를 완전히 가로타고앉으려는 이스라엘당국의 비호두둔하에 감행된 범죄이다.

팔레스티나대통령은 그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이슬람교사원을 불태우는것은 범죄적인 폭력적인 정착민들의 엄중한 범죄행위들은 이스라엘경찰군의 눈앞에서 그들의 비호밑에 감행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정부가 이러한 테로분자들을 처벌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종교장소들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에 의거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사건들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만 발생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꾸드스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지난 시기 이스라엘은 꾸드스에 새로운 살림집들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팔레스티나인살림집들을 마구 허물어버리였다. 그리고 유태인들을 대대적으로 정착시켰다. 꾸드스를 저들의 영원한 소유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꾸드스에 유태인정착촌들이 늘어나면서 도시에서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유태인정착민들은 동부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을 장악하기 위해 빈번히 사원에 불법침입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을 마구 내쫓고 그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지어는 사원안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는 란동도 부리였다. 이스라엘군도 알 아크사사원에 뛰여들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쌍방간의 충돌과정에 저들의 장교 2명이 죽자 이때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이 사원을 폐쇄하고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검문소들과 금속탐지기들을 설치하는 망동을 부려였다.

이스라엘이 알 아크사사원을 비롯하여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사원들을 강탈하고 불태워버리고있는것은 팔레스티나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신앙심을 말살하기 위해서이다. 팔레스티나인들의 신앙심을 없애자면 그들의 성지를 없애야 하며 그렇게 해야 팔레스티나를 완전히 강점할수 있다는 라신에서부터 저지르고있는 범죄행위들이다.

미국의 전적인 비호두둔을 받고있는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국제사회는 자기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남의 나라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만행을 일삼고있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있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지역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정 원 준

이란최고지도자 미국이 중동의 충돌을 야기시키고있다고 비난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4월 30일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충돌을 야기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금 중동의 일부 나라들을 이란과의 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미국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더우기 미국은 이 나라들이 이란과의 대결비용을 떠맡게 하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군은 지역에서 불안정의 근원으로 되므로 중동에서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인들을 천대하는 사회

《퇴직후의 생활은 사형집행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일본의 로인들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류행어이다. 눈만 짜개지면 불집적번영을 떠드는 일본에서는 로인들이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후가이도 삿뽀로시에 있는 한 목조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11명이 숨졌다. 비극은 1명을 제외한 10명의 사망자들의 나이가 60~80살이라는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자식들의 버림을 받았거나 의지가지할데 없는 로인들이 거처하던 곳이다. 현재 일본에는 이런 목조건물이 1 200여개나 있는데 항시적인 화재발생위험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곳들은 돈이 얼마 없는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별천지》로 되고있다.

그보다 더 민곤한 로인들에게는 이런 곳도 차례지지 않는다.

돌봐줄 자식도 돈도 없는 로인들이 제발로 찾아가는 곳이 있다. 바로 감옥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양로원 아닌 《양로원》으로 되고있다. 감옥밥이라도 매일 먹을수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한지보다는 한결 낫다는 생각이 로인들을 범죄의 길로 떠밀고있다.

한 로인범죄자는 경찰이 절도범죄현장에 나타나자 도망치려고 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제발 잡아가달라고, 죽을 때까지라도 감옥밥을 먹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고 한다.

로인범죄자들은 감옥에 들어간 다음 자기를 병보석으로 인차 출옥시킬가봐 걱정하면서 형기를 연장시켜달라고 애원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일본의 한 연구사가 한 말이 있다.

《일본의 사회환경은 로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있다. 로인들은 감옥에서 나온 후 수입이 적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것으로 하여 감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즉시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썩어빠진 일본이다.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야 할 로인들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연명해야 하는 일본사회야말로 그자체가 감옥이며 지옥이다.

본사기자 박 예 경

외세의 침략책동이 확대되고있다고 폭로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4월 30일 이란대표단과의 상봉석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외세의 침략책동이 확대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지금 외부세력들은 자기들이 지원하고있는 반대파세력이 크게 패하여 수리아에서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간 후 공격에 직접 관여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의 침략은 수리아인들로 하여금 테로주의와 싸우고 자기들의 주권과 자결권을 지키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해줄뿐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미국의 음모를 배격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총비서가 4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여 중동평화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음모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팔레스티나피난민문제를 협상탁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지 않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미국이 자기의 립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평화과정에서 동반자나 중재자로 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시도 비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 발렌찌나 마트비엔꼬가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시도를 비난하였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세계질서의 객관적인 재수립과정이 진행되고있지만 미국과 그의 서방동맹국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세계의 운명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권리를 가지는 지도적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의 간첩암살미수사건을 둘러싼 도발과 수리아에서 연출된 화학무기사용과 관련한 날조사건들, 로씨야에 대한 경제제재, 이 모든것은 하나의 줄에 꿰인 고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714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